

# PHOTO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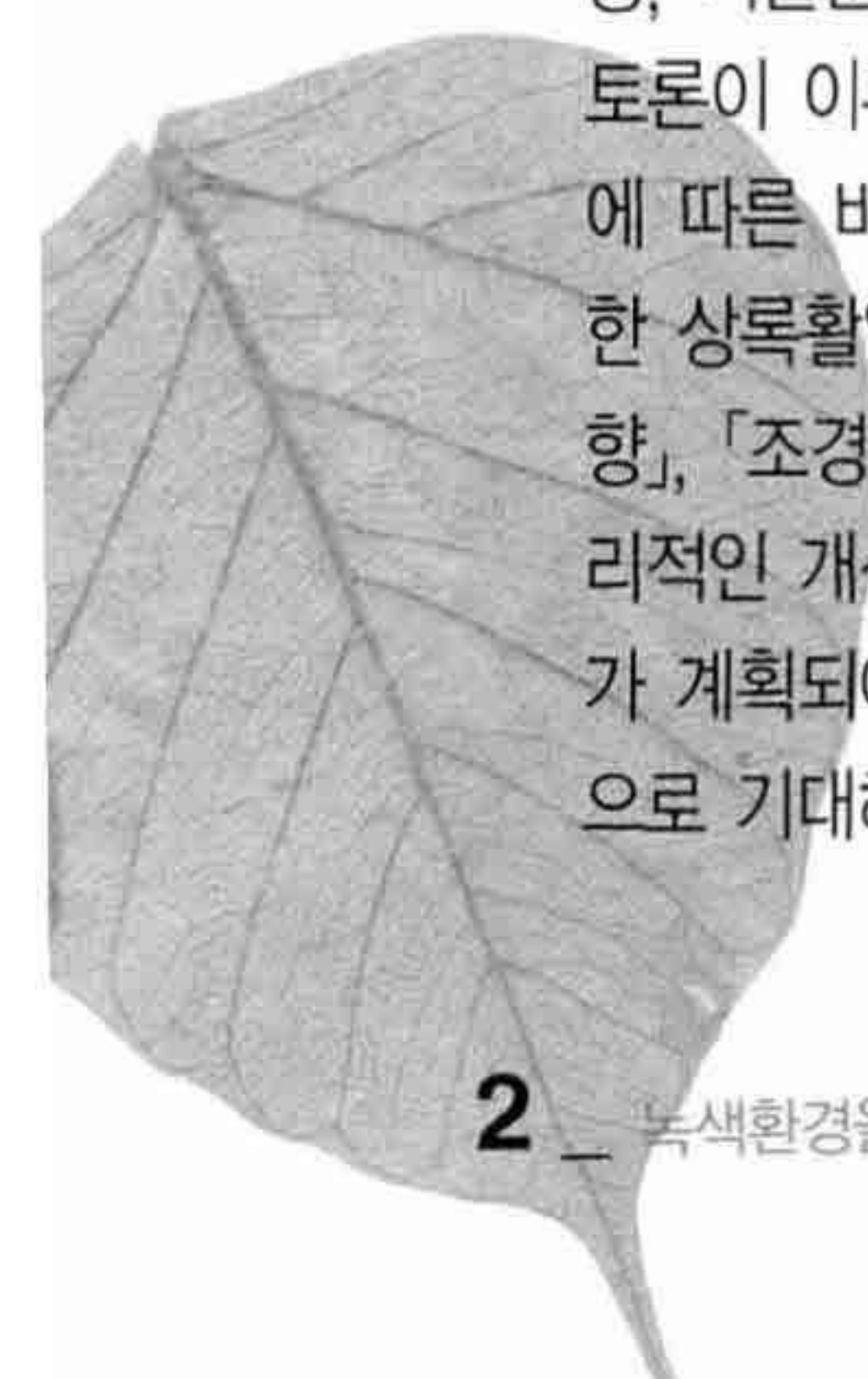
산림청, 조경수 산업 발전 모색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8년 산주와의 만남

-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민·관·학 조경 전문가 주제발표 -  
 산림청(청장 하영제)과 한국조경수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조경수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조경수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민·관·학계의 대표적인 국내 조경 전문가와 조경수협회 회원, 관련기관,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국내외 조경수 산업의 최근 동향을 진단하고 조경수의 생산, 유통, 기술분야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숲 조성에 따른 바람직한 조경수목 도입방안」, 「조경수로 도입활용 가능한 상록활엽수 개발」, 「국제화 시대 가치 있는 조경수종 개발 방향」, 「조경수 시설양묘 발전과 생산기술」, 「조경수 산업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향」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가 계획되어 있어 조경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5월21일 전남 함평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국의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 경영 컨설팅 행사인 「2008년도 산주와의 만남」행사를 개최했다.  
 "사유림경영, 보물산으로 가깝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주지원정책, 소득유망품목, 우수 임업경영사례 등을 소개하고 25개 임업경영분야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산림, 인간 그리고 미래" 특강

하영제 산림청장은 13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산림과학 전공 대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이 주는 혜택과 미래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한 "산림, 인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2008 산림박람회

'2008 산림박람회'가 27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경남수목원에서 개막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내달 1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된다. 박람회엔 130여개 업체와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며 경남수목원 56ha에 370개의 부스를 설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는 산림산업 활성화와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 산림강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인니 기후변화 대응 및 임업 협력 증진 MOU 체결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회 한·인니 산림포럼에 참가해, 50만ha 조림투자기업 지원과 기후변화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인니 임업협력 증진센터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임업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와 조림 및 육림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열대림 공동연구와 시험림 조성 MOU"를 체결했다.



UNCCD 사무총장 면담, 동북아 사막화 방지 위한 공동노력 협약

하영제 산림청장은 5일 오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세계사막화방지의 날'(6.17일)을 기념해 방한한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렉 낙가자(Luc Gnacadj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중국, 몽골지역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및 황사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